

#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이민 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생활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 및 주변사람들의 음주행동이 음주빈도나 음주량 그리고 음주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예상했던 바 대로 생활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감 및 주변사람들의 음주정도가 복합적으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음주빈도의 예언변인은 사회적인 영향, 스트레스, 알코올의 사회적인 촉진효과였으며 음주량의 경우는 스트레스와 알코올효과와 부정적인 기대 변인이었고 음주문제의 예언변인은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영향이었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 음주빈도나 음주량을 유의미하게 예언해 주는 변인은 사회적 영향이 유일하였으며 음주문제의 예언변인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영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음주빈도나 음주량 및 음주문제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성별에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술은 인간의 생활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습관적이고 과도한 음주는 신체 및 정신적인 질환의 유발과 가정파탄이나 범죄행동 및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 역기능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 관련 연구자들은 음주습관이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생의 59%, 성인의 68%가 술을 마시며 성인 남자의 20%, 여자의 9%가 중독에 이를 정도로 과음을 하고 있다 (Mikkelsen, 1985). 1인당 알코올 소비량도 미국과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경우 더욱 뚜렷함이 보고되고 있다 (Selzer, 1980).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포함한 알코올중독의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약 4.5%부터 15.2% (Helzer,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 지원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광모과계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前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現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986)까지 다양하며, 정신과 입원환자의 21.6%를 점유한다는 보고도 있다(Meyer, 1973).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남자의 약 2/3가 음주자라고 알려져 있으나(조호철 등, 1975) 정신과에 입원하는 비율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오태원, 윤석화, 1980).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급격한 산업화, 현대화에 따라 1인당 술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김유광·이대회, 1983), 알코올중독의 유병률도 예상으로 높은 편이다(이길홍, 이병윤, 1975). 우리나라 성인 특히 남성의 경우 알코올성 장애의 평생유병율은 21.9%이며 알코올남용의 평생유병율은 12.06%이며 알코올의존 즉, 주정중독의 평생유병율은 9.92%이고 알코올의존의 평생유병율은 25.63%로 나타나고 있다(이정균, 1987).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알코올성 장애의 빈도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DIS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진단적 면담 검사)를 이용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알코올성 장애의 평생유병율은 24.5%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 28.3%, 여학생의 경우는 5.8%이다(김광호 등, 1988). 청소년기 특히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은 이 시기가 성격형성 과정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야 공식적으로 음주에 대한 사회적인 용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음주행동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음주는 신체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업의 수행이나 정신건강, 또는 일상적인 적응문제 뿐 아니라 대학생활의 음주습관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행동의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음주관련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여러가지 접근 중 심리사회적인 접근방법에서는 주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상황적인 요인들 및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음주행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스트

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술을 마신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Cooper, Russell, Skinner, Frone, & Mudar, 1992). 이러한 입장은 Conger(1956)와 같은 연구자에 의해서 알코올소비의 긴장감소 가설로 제안되었다. 긴장감소이론에 따르면 술은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난 후에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긴장유발 상황은 음주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긴장감소이론의 직관적이고 설득력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지지는 혼합되어 있으며 최근의 연구자들(Cappell & Greeley, 1987; Sher, 1987; Young, Oei, & Knight, 1990)은 보다 더 정교한 모델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Cooper등(1992)에 의하면 여러가지 연구조사 결과를 개관하면서 사회적인 음주자와 문제 음주자들이 알코올은 긴장, 불안, 또는 다른 스트레스 관련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이완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음주동기에 대한 상관연구들은 10-20% 정도의 음주자들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고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한다(Faber, Khavari & Douglas, 1980). 종합해보면 이러한 자료들은 음주의 긴장감소 이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이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켜준다고 믿고 있으며 음주자의 상당수가 알코올을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대처로 사용함을 지적해 준다.

이러한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유발된 음주를 직접적으로 밝혀려는 시도들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일관성이 없었다. 실험실과 현장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다양하게 조작한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술을 마실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강력하지도 신뢰롭지도 않음을 보여주었다(Cooper 등, 1992). 스트레스와 알코올간의 관계를 밝혀려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비밀관성은 스트레스와 알코올간의 관계를 중재하거나 조건화시키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음주경험이나 음주문제에서 남녀간의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Hilton(1987)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일관성있게 술을 더 많이 마시며 더 많은 음주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은 사회화과정의 차이를 지적한다(Cooper, 1992).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괴로움을 내면화하도록 사회화되고 남자들은 외면화하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다(Cooper, 1992). 역학적 자료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여자가 남자들에 비해 우울, 불안, 그리고 다른 신경증상을 더 많이 보이며 남자는 성격장애, 약물과 음주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논리선상에서 여자들은 스트레스-관련 효과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많고 남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알코올관련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낼지 모른다. 이러한 주장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술을 더 사용하여 알코올중독이나 음주문제를 유발시키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Parry 등, 1974).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남자들의 음주에 대한 의견은 여자들에 비해 알코올유도 스트레스 감소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지 모른다. 알코올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에서의 성차에 대한 평형화된 위약연구에 의하면 약물효과 자체는 남녀모두에게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여자에게는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 괴로움을 증가시킨다는 신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Cooper, 1992). 이러한 결과는 약물효과에 대한 인지적 기대에서의 남녀간의 차이가 음주와 스트레스 간의 관련정도에서의 성별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기보고식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해석과 일치하며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음주후 이완을 덜 기대한다는 것을 지적한다(Rosenow, 1983). 따라서 이러한 경험적인 증거들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로 술을 더 자주 마실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는 음주의 영향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음주 여부 자체뿐 아니라 음주 후 술에 취했을 때의 행동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코올사용의 인지사회학습 모델(Abrahams & Niaura, 1987)에 의하면, 알코올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다양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려는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자 할 때에는 알코올이 부정적인 정서를 어느정도 완화시킨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알코올효과에 대한 인지적 기대에 관심을 가진 초기의 연구는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여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 중 두 가지 차원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알코올이 '마술처럼' 광범위한 신체적, 사회적 경험들을 변형시키거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나머지 네 차원은 성적 흥분, 힘과 공격성의 증가, 사회적 주장의 증가 그리고 긴장감소에 대한 기대들을 다룬다. Rohsenow(1987)는 후에 알코올의 부정적 효과, 특히 수행의 손상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두 가지 차원을 추가하였다.

음주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사회인지 학습 관점에서는 관찰이나 모방이 행동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인 변인으로서 모델의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몇몇의 연구자들(Cutler & Storm, 1975; Rosenbluth, Nathan, & Lawson, 1978)은 집단으로 음주할 때가 혼자서 음주할 때 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Caudill과 Marlatt(1975)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주행동에서의 모델의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모델과 같이 있었던 피험자들은 소량음주 모델과 같이 있었던 피험자들 보다 더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동료집단의 행동이나 태도가 약물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elson 등(1986)은 청소년들의 음주를 포함한 약물사용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면서 음주이유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동료집단의 약물사용에 대한 압력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주변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음주습관이나 태도도 음주행동의 중요한 예언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및 사회학습요인과 같은 변인들을 음주행동과 관련된 주요변인으로 선정하였다. Christiansen과 Goldman(1983)은 청년기의 음주양상이 성인기의 음주행동을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이루어지며,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음주경험을 하게 된다.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예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주행동이 시작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변인들이 음주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이 남녀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방 법

### 대상

본 연구에서 참여한 연구대상은 남녀 대학생 280명이었으며 무응답자 한명을 제외한 279명 중 남학생은 153명이고 여학생은 126명이었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한 279명 중 1학년이 62명, 2학년 74명, 3학년 78명 및 4학년 65명이었다.

###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에는 성별 및 학년별 특성과 종교등을 알아볼 수 있는 인구학적인 질문 문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측정도구들이 포

함되어 있었다. 설문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응답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을 연구자가 설명한 다음 모든 항목은 연구참여자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 1) 생활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경험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에 겪고 있는 자신의 생활문제의 정도를 5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생활문제 척도에 포함된 내용은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관계, 가정불화, 학교성적, 성격적인 문제, 결석이나 결강등의 학교적용문제,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만족도, 지적인 능력과 관련된 문제, 건강문제 등 12개의 문제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 2)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기 위해 Brown등(1980)과 Rohsenow(1983)가 제작한 알코올 기대 척도를 참고하여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술을 마셨을 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일반적인 긍정적 효과, 사회적 및 신체적 쾌감, 성적인 항진, 공격성의 증진, 사회적 표현력의 증진, 신체적인 이완, 지적기능의 장애, 부주의한 행동등 8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영역은 모두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6개의 문항에 대해 varimax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는 대학생들의 경우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5개의 요인은 부정적인 기대요인, 사회적 촉진요인, 긴장감소 요인, 성기능과 공격성의 항진 요인, 및 자기주장성의 증대 요인이다.

### 3) 사회적 영향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관찰이나 모방 및 사회적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가족중 누군가가 술을 잘 마신다'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편이다'라는 두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는 두개의 문항의 평정점수를 합한 것으로서 두 문

항 모두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만들어 졌다.

#### 4) 음주량 및 음주빈도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상시 한번에 500ml들이 맥주 몇병을 마시는지와 한달 중 평균 며칠정도 술을 마시는지에 대해 쓰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방식을 사용하였다. 음주량과 관련된 질문에서 맥주만을 쓰도록 한 이유는 예비연구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맥주는 마신다고 반응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소주나 막걸리 등 맥주 이외의 술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5) 음주문제

음주와 관련된 생활상의 문제와 알코올중독의 가능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김자성, 이철원, 김용식(1989)이 입원 및 외래 주정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주정중독 선별검사 문항을 사용하였다. 음주문제 척도는 지난 일년동안 경험했던 음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문제의 지표로서 “예”라고 답한 총문항수를 사용하였다.

## 결 과

### 1. 인구학적 특성 및 흡연과 음주행동

#### 1) 성별 및 학년별 음주경험, 음주량 및 음주빈도

조사 대상 학생 279명 중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 음주 경험이 없다는 학생은 12명으로서 전체 학생의 4.3%에 해당하였다. 이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음주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학생이 152명 중 1명(.006%)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125명 중 11명(.08%)이었다.

음주빈도에서 성별 및 학년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F(1,250)=13.41, P<.001$ ) 및 학년 ( $F(3,250)=3.07, P<.05$ )변인의 주효과가 있었으며,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 ( $x=7.23$ )이 여학생 ( $x=5.03$ )보다 술 마시는 날이 많으며 학년에 따라 음주빈도가 다르나, 성에 따라 학년별 음주빈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1회 음주시 평균 음주량을 종속변인으로 한 2원 변량분석 결과, 성변인의 주효과 ( $F(1,250)=65.40, P<.001$ )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학년변인의 주효과 및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평균 음주량에 있어서 남학생 ( $x=3.40$ )과 여학생 ( $x=1.36$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 2) 성별 및 종교별 음주양상

무응답자를 제외한 24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평균 음주빈도와 일회의 평균 음주량은 표 1과 같다.

표 1. 성별, 종교별 음주량(맥주 500ml들이 병수)/월평균 음주빈도(인원수)

성별/종교	무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기타	계
남	3.84/8.28(90)	3.83/8.89(9)	2.50/5.19(36)	2.69/5.08(13)	0/3.00(1)	3.39/7.26(149)
여	1.18/5.65(49)	1.31/5.62(13)	1.62/4.64(36)	1.43/2.60(10)	0/.00(0)	1.36/5.03(108)
계	2.90/7.35(139)	2.34/6.95(22)	2.06/4.92(72)	2.14/4.00(23)	0/3.00(1)	2.54/6.14(257)

성별 및 종교형태에 따라 음주빈도와 음주량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원변량 분석한 결과, 음주 빈도에서는 성별인 ( $F(1, 248) = 11.28, P < .0001$ )과 종교변인 ( $F(4, 248) = 4.17, P < .05$ )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이며 종교가 없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술을 자주 마시며 종교가 있는 경우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순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에 있어서는 성별인 ( $F(1, 248) = 62.27, P < .001$ )과 종교변인간의 2원 상호작용효과 ( $F(4, 248) = 3.52, P < .05$ )가 유의미하였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자의 경우 종교를 갖지 않은 집단 ( $x=3.84$ )과 천주교 ( $x=3.83$ )인 경우가 기독교 ( $x=2.50$ )나 불교 ( $x=2.69$ ) 집단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집단이나 종교별 차이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흡연과 음주

남자의 경우는 전체 150명 중 107명(71%)이 흡연을 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107명 중 18명(약 17%)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음주양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무응답자를 제외한 남학생 150명과 여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한 월평균 음주빈도와 평균 음주량을 계산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 및 흡연여부에 따라 월평균 음주빈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원변량 분석한 결과, 성별인 ( $F(1, 253) = .51, P < .05$ )의 주효과는 유의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흡연변인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F(1, 253) = 21.32, P < .001$ ). 즉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술을 마시는 빈도가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흡연자의 경우는 음주빈도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았으나, 흡연자의 경우는 여학생이 오히려 남학생보다 술마시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남학생은 105명이고 흡연여학생은 18명에 불과하여,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쳤다 ( $F(1, 253) = 2.75, P < .09$ ).

일회 음주량에서의 성별 및 흡연변인의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원변량분석한 결과, 성별인 ( $F(1, 253) = 127.28, P < .001$ )과 흡연변인의 주효과 ( $F(1, 253) = 5.22, P < .005$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음주량이 많으며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더 많은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 2. 스트레스,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및 사회화 습 효과와 음주양상

성차나 생활과정에서 겪는 문제로 인한 스트레

표 2. 성별 및 흡연여부에 따른 월평균 음주빈도/음주량 : 500ml(인원수)

성별/흡연	흡연	비흡연	계
남자	7.94/3.61(105)	5.56/2.90(45)	7.23/3.40(150)
여자	9.06/1.85(18)	4.22/1.27(89)	5.04/1.37(107)
계	8.11/3.36(123)	4.67/1.82(134)	6.32/2.55(257)

스와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및 동료나 가족의 음주행동이 음주빈도나 음주량 및 음주문제등, 음주양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 분석에 투입된 예언변인은 각각의 주 예언변인과 함께 알코올효과에 대한 다섯가지 기대요인들과 생활문제 및 동료나 가족의 음주행동 변인과의 2원 및 3원 상호작용 변인이 포함되었다. 남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음주빈도나 음주량에서 남녀간의 성차가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뿐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도로 한 회귀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 2) 전체대상

남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월평균 음주빈도를 종속측정치로 하고 성과 생활문제, 주변사람들의 술마시는 정도와 다섯가지의 알콜 기대요인, 그리고 이 기대요인들과의 2원 및 3원 상호작용효과들을 예언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 (1) 월평균 음주빈도

예상했던 바 대로, 가족이나 주변 동료들 중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생활상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리고 술을 마시면 사회적인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믿을수록 음주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활문제와 알콜에 대한 첫번째 기대요인 즉, 알코올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월평균 음주빈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R <sup>2</sup>	B	$\beta$	P
1. 사회적 영향	.13	.63	.28	.000
2. 성	.19	-.24	-.24	.000
3. 생활문제	.22	.27	.30	.000
4. 기대요인-2	.24	.24	.14	.017
5. 생활문제×기대-1	.26	-.01	-.18	.018

이러한 2원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생활문제(평균=28.15)와 기대요인-1(알코올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평균=10.22)의 전체 평균점수 보다 1표준편차 높은 집단과 1표준편차 낮은 피험자들을 각각의 상하 집단에 할당하여 집단별 월평균 음주빈도를 구한 결과, 생활문제를 심하게 겪으면서 부정적 효과가 낮다고 기대할 때(14.40) 술마시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생활문제를 심하게 경험하지만 알코올이 부정적인 효과가 높다고 기대할 때(6.00)가 두번째로 음주빈도가 높았다. 생활문제를 적게 겪는 집단의 경우도 알코올의 부정적 효과를 높게 평가할 때보다(2.25) 낮게 평가할 때(4.58) 더 자주 마시는 편이나 그 정도는 생활문제를 많이 겪는 경우보다 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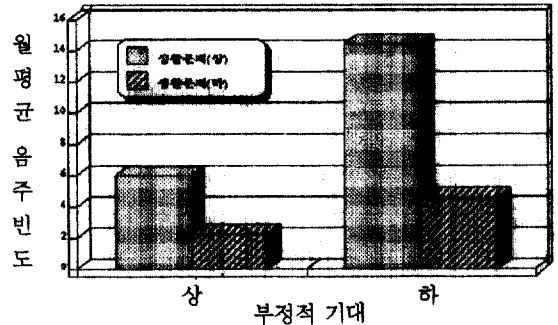


그림 1. 생활문제 정도와 알코올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에 따른 월평균 음주빈도

### (2) 일회 평균 음주량

한번에 마시는 평균주량을 종속측정치로 한 회귀분석결과(표 4)에서는 성변인이 가장 큰 예언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술마시는 빈도 뿐 아니라 일회의 평균 음주량도 현저히 많음을 의미한다. 성변인 다음으로는 생활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변인이었다. 세번째 예언변인은

알코올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음주빈도의 경우에는 알코올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주요 예언변인이었으며 알코올효과의 부정적 기대요인은 생활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만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음주량을 결정하는 기대변인은 지적인 기능의 저하나 알코올로 인한 부주의한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요인이 긍정적인 기대요인보다 더 중요한 변인인 것 같다.

표 4. 평균 음주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R <sup>2</sup>	B	$\beta$	P
1. 사회적 영향	.21	-2.14	-.46	.000
2. 생활문제	.23	.06	.16	.004
3. 기대요인-1	.25	-.08	-.13	.018

### (3) 음주문제

과거 일년동안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종속측정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표 5), 생활상의 스트레스 변인의 예언력이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음주 후의 문제행동을 심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주문제 행동을 예언하는 두번째 변인은 성차이고 세번째가 가족이나 주변동료 중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였다. 즉 음주 후에 음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주변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많을수록, 음주문제를 많이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생활문제와 알코올의 사회적 촉진효과에 대한 기대요인과의 2원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원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생활문제와 기대요인-2(알코올의 사회적 촉진효과에 대한 기대: 평균=

표 5. 음주문제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R <sup>2</sup>	B	$\beta$	P
1. 생활문제	.10	.07	.16	.053
2. 성	.18	-1.33	-.28	.000
3. 사회적 영향	.22	.19	.18	.002
4. 생활사건×기대-2	.24	.01	.19	.027

7.17)의 평균점수 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과 1 표준편차 낮은 피험자들을 각각의 상하집단에 할당하여 집단별 음주문제 빈도를 구한 결과, 생활문제를 심하게 겪는 집단의 경우, 알코올의 사회적 촉진효과가 낮다고 기대할 때(2.60)보다 사회적 촉진효과가 높다고 기대할 때(5.40) 술과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제를 적게 겪는 집단의 경우는 알코올의 사회적 촉진효과를 낮게 평가할 때(1.85)와 높게 평가할 때(1.66)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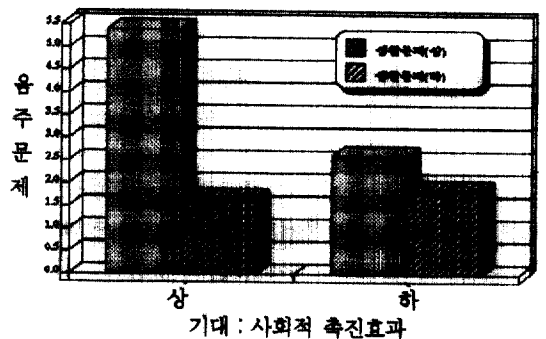


그림 2. 생활문제 정도와 알코올의 사회적 촉진효과에 대한 기대정도에 따른 음주문제

## 2) 남자

### (1) 월평균 음주빈도

월평균 음주빈도와 일회의 평균 주량 및 음주문제에서 남녀간의 성차가 현저하였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했을 때 투입했던 예언



변인들 중 성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여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표 6), 음주빈도를 가장 잘 예언해 주는 변인은 주변사람들 중 술을 잘마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은지였다. 두번째 예언변인은 생활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였으며 세번째 변인은 알코올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촉진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이었다. 이와 함께 남녀모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동일하게 생활문제와 알코올에 대한 첫번째 기대요인 즉, 알코올효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와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월평균 음주빈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남자)

예언변인	R <sup>2</sup>	B	$\beta$	P
1. 사회적 영향	.16	.73	.28	.000
2. 생활문제	.22	.36	.38	.000
3. 기대요인-2	.24	.29	.17	.029
4. 생활사건×기대-1	.27	-.01	-.23	.021

(2) 일회평균 음주량

남학생들의 평균 음주량을 종속측정치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표 7), 일회의 음주량은 생활문제가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이었으며 두번째는 알코올의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즉, 생활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그리고 음주효과를 부정적으로 기대하지 않을수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다.

표 7. 평균 음주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남자)

예언변인	R <sup>2</sup>	B	$\beta$	P
1. 생활문제	.03	.09	.21	.011
2. 기대요인-1	.06	-.10	-.17	.037

(3) 음주문제

중다회귀분석 결과(표 8), 술과 관련된 음주문제의 경우,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음주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언해주는 첫번째 변인은 생활상의 문제였으며 두번째 예언변인은 주변사람들의 술마시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음주문제가 주로 생활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많고 주변에 술마시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에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8. 월평균 음주빈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남자)

예언변인	R <sup>2</sup>	B	$\beta$	P
1. 생활문제	.16	.14	.34	.000
2. 사회적 영향	.21	.25	.21	.007

3) 여자

(1) 월평균 음주빈도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월평균 음주빈도에서 주변사람들 중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는지만이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요인들이나 각 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9).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여학생들의 경우에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나 생활상의 스트레스 정도가 음주빈도를 의미있게 예언해 주는 변인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표 9. 월평균 음주빈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여자)

예언변인	R <sup>2</sup>	B	$\beta$	P
1. 사회적 영향	.14	2.27	.37	.000

(2) 일회 평균 음주량

일회 음주시 평균 주량을 종속측정치로 회귀분

석한 결과에서도 여학생들의 경우는 생활문제상의 스트레스나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요인들이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평균 음주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여자)

예언변인	R <sup>2</sup>	B	$\beta$	P
1. 사회적 영향	.09	.15	.30	.001

### (3) 음주문제

술을 마시고 난 후 겪는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여학생들도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생활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두번째로 중요한 변인은 주변에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느냐였다.

표 11. 음주문제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여자)

예언변인	R <sup>2</sup>	B	$\beta$	P
1. 생활문제	.09	.10	.25	.009
2. 사회적 영향	.13	.18	.20	.034

## 논 의

사회학습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음주문제는 학습된 행동이며 여러가지 결정요인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획득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학습경험이나 상황적인 선행사건들 및 인지적인 과정과 음주행동 후에 수반되는 강화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인지적인 과정에는 알코올효과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거사건의 기억이나 모델링의 효과도 여기에 관여할 수 있다. 음주행동과 그 결과 간의 강화 유관성은 알코올의 보상적 측면이 있음을 의미하여 이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사회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및 주변사람들의 음주행동이 대학생들의 음주빈도나 음주량 및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예상했던 바대로 음주빈도나 음주량 및 음주문제 행동에서 남녀의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고 일회의 음주량이 많았으며 술마신 후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동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일관성있게 술을 더 많이 마시며 더 많은 음주문제를 보인다는 Hilton(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흡연여부와 음주양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음주빈도가 현저하게 높고 음주량도 많았다. 이는 주정중독과 담배의존 및 병적인 도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김광호 등(198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음주빈도의 자료분석 결과, 사회적인 영향과 성변인 및 생활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그리고 알코올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음주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생활상의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알코올의 부정적인 효과를 과소평가할수록 음주빈도가 증가하는 결과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변에 술마시는 사람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술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촉진적인 기능을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적다고 믿을수록 술마시는 회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회 평균 음주량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남녀의 성차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이 생활상의 스트레스 그리고 알코올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정도였다. 알코올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음주빈도를 예언하는 데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일회의 음주량을 예언하는 데에는 중요하지 않은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음주 후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변인은 생활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

한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이 성변인이고 세번째가 주변에 술마시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는지였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알코올의 사회적 촉진효과에 대한 기대변인과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즉 생활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알코올의 사회적 촉진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지만 이러한 기대가 적은 사람은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심한 음주문제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알코올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나, 알코올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강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음주에 대한 절제를 함으로써 음주문제를 적게 드러내기 때문에 알코올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알코올효과에 대한 인지적인 기대가 중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음주빈도나 음주량을 유의미하게 예언해 주는 변인들이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문제에서는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달리 생활사건과 알코올의 사회적 촉진효과에 대한 기대변인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즉 남학생들이 술을 마신 후에 보이는 음주관련 문제는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주변에 술마시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증가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나 사회적인 영향과 음주문제와의 관계를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가 중재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남학생들과 달리 음주빈도나 일회의 평균 음주량에서 주변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있느냐만이 유일한 예언변인이었다. 여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빈도나 일회의 평균 음주량은 생활상의 스트레스나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나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변인이 음주행동을 예언하지 못한 것은 사회화과정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이나 음주등 괴로움을 외현적으로 표현

하기보다는 내면화하도록 학습되었을 가능성 (Parry, 1974)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변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많으면 음주문제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여학생의 경우, 주변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느냐가 음주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여기에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음주관련 문제행동도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결론

### 음주와 흡연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의 71%와 여학생의 17%가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음주빈도와 평균 음주량을 비교한 결과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현저하게 술을 자주 마실 뿐 아니라 평균 음주량도 많아서 음주와 흡연의 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외의 다른 약물들을 사용할 위험성이 높다는 Hawkins등(1992)과 김광호 등(1988)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 성차

흡연여부나 음주빈도, 음주량 및 음주문제 모두에서 남녀간의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에 비해 흡연비율도 높고 술을 자주 마시며 일회의 음주량도 많을 뿐 아니라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동도 현저하게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의 음주나 흡연행동을 사회가 더 용인하고 있으며 사회화 과정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부정적인 정서대처에서 외면화하거나 술이나 담배를 사용하도록 학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여자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 괴로움을 증가시키며 (Cooper, 1992), 음주의 긴장감소효과를 덜 기대한다는 연구결과 (Rosenow,

1983)들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본 연구와 이들 연구 결과물에 따르면 알코올사용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보상적으로 작용하며 이 때문에 남자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알코올효과에 대한 인지적인 기대는 음주빈도나 음주량 뿐 아니라 음주 후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척도는 부정적인 기대, 사회적 촉진, 긴장감소 효과, 성기능과 공격성의 향진, 및 자기주장성의 증대 등,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됨이 확인되었다. 이들 요인들 중, 음주빈도, 음주량, 및 음주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언해 주는 요인은 사회적 촉진효과와 부정적인 기대 요인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알코올이 사회적 촉진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기대할수록 술을 자주 마시며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알코올이 부정적인 효과가 적다고 믿을수록 술마시는 회수가 증가하였다. 일회의 음주량은 알코올이 지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요인 보다는 오히려 알코올의 부정적 효과가 많다고 믿을수록 음주량이 감소하여, 음주량은 알코올의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기대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요인중 어떤 요인도 음주빈도나 음주량 및 음주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언해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와 음주행동간의 관계에서 남녀간의 성차가 현저하며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알코올에 의한 긴장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낮다는 Rosenow(1983)의 주장을 지지한다.

### 사회적 영향

음주행동은 대부분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주변사람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관찰이나 모방이 학습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족이

나 친한 사람들 중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어느정도 많으냐는 남학생의 음주빈도와 음주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주변사람들의 음주경도가 그들의 음주빈도와 음주량 뿐 아니라 음주문제 모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음주행동에서의 상황적인 변인으로서 모델링의 효과를 강조한 Cutler 등(1975)과 Rosenbluth등(197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 특히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는 가족이나 동료집단의 음주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추후 연구에 대한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대학생들의 경우 음주빈도나 음주량 및 음주문제에서 남녀의 성차가 분명하였다. 생활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음주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남학생들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의 긴장감소 모델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설득력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자들의 음주빈도나 음주량에는 생활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술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학생들의 경우도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동의 정도는 생활상의 스트레스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습관적인 음주나 음주문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들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남녀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음주행동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으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구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청년기를 지난 일반 성인들, 또는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데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후연구에서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습관적이고 과도하게 음주를 하는 주정중독 환자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적응적이고 사교적인 음주와 부적응적인 음주행동의 예언변인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자료수집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법을 사용했다는 점과 일상생활에서의 음주관련 적응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법보다는 집중적인 면접기법을 사용하거나 주변가족들의 면접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 음주행동이란 개인의 생물학적인 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음주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예언변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 종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음주행동의 원인적 변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주행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광호, 신정호, 이만홍(1988). 일부대학생 집단에서의 주정중독, 담배의존, 병적 과식육증 및 병적 도박의 유병율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7(6), 1042-1052.

이정균(1987). 한국정신장애의 역학적 연구 IX-알코올중독의 유병율. *서울의대 정신의학*, 13, 15-26.

김유광, 이대회(1983). 한국정부의 술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국립서울정신병원 연구논문집.

김자성, 이철원, 김용식(1987). 한국형 주정중독 선별검사 마련을 위한 예비적 연구(II). *신경*

*정신의학*, 28(3), 500-507.

오태원, 윤석하(1980). 종합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알코올성 장애자들. *신경정신의학*, 12, 110-118.

이길홍, 이병윤(1975). 한국인의 습관성 음주에 관한 연구. *고려의대지* 12, 81-102.

Abrahams, D.B. ' Niaura, R.S.(1987).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In H.T. Blane & K.E. Leonard(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pp.131-178). New York : Guilford Press.

Brown, S.A.(1985). Expectancies vs background in the prediction of college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1), 123-130.

Brown, S.A., Goldman, A.I., & Anderson, L.R.(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4), 419-426.

Cappell, H., & Greeley, J.(1987). Alcohol and tension reduction: An update on research and theory. In H.T. Blane & K.E. Leonard(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pp. 15-54). New York : Guilford Press.

Caudill, B.D. & Marlatt, G.A.(1975). Modeling influences in social drinking: An experimental analogu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405-415.

Christiansen, B.A. & Goldman, M.S. (1983). Alcohol-related expectancies vs demographic/background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dr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 Psychology*, 51(2), 249-257.
- Cooper, M.L., Russell, M., Skinner, J. B., Frone, M.R., & Mudar, P. (1992). Coping, expectancies, and alcohol abuse: a test of social learning formul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139-152.
- Cutler, R.E. & Storm, T. (1975). Observational study of alcohol consumption in natural setting: The Vancouver beer parlou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6, 1173-1193.
- Faber, P.D., Khavari, K.A. & Douglas, F.M.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reasons for drinking: empirical valid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6), 780-781.
- Hawkins, J.D., Catalano, R.F., & Miller, J.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1), 64-105.
- Hilton, M.E. (1987). Drinking patterns and drinking problems in 1984: Results from a general population survey. *Alcoholism* (pp.181-226). New York: Guilford Press.
- Mayer, N.G. (1973). *Changes in the age, sex, and diagnostic compositions of first admissions to states and country mental hospitals, United States 1962-1972, National Mental Health Statistical Note*.
- Mikkelsen, E.J. (1985). *Psychiatry*, Vol 2, New York: Basic Books Inc, 35, 1-6.
- Nelson, T. Rosenthal, D., Harrington, r. G., Michelson, D. (1986). Assessment of adolescence substance abuse. In R. G., Harrington (ed) *Testing adolescents*. Test Corporation of America: Kansas City.
- Parry, H.J., Cisin, I.H., Balter, M.B., Mellinger, G.D., & Manheimer, D.I. (1974). Increasing alcohol intake as coping mechanism for psychic distress. In R. Cooperstock (ed), *Social aspects of the medical use of psychotropic drugs* (pp.119-144). Toronto: Addiction Research Foundation of Ontario.
- Rohsenow, D.J. (1983). Drinking habits and expectancies about alcohol's effects for self vs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752-756.
- Rosenbluth, J. Nathan, P.E., & Lawson, D.M. (1978). Environmental influences on drinking by college students in a college pub: Behavioral observations in the natural setting. *Addictive Behaviors*, 3(2), 117-122.
- Selzer, M.L. (1980). Alcoholism and alcoholic psychosis. In Kaplan (ed)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III*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 Sher, K.J. (1987). Stress response dampening In H.T. Blane & K.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pp.227-271). New York: Guilford Press.

## **Psychosocial Factors for Drinking Behavior**

**Min-Kyou Lee**

Ajou University

A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 of such psychosocial determinants as stress, expectancy to alcohol effects and social influence on drinking behavior. The drinking behavior was measured with frequency and average amount of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s. As expected, the stress, the cognitive expectancy and the social influence variables significantly predicted drinking behavior. The male subjects, the drinking frequency measure was affected by the social influence, the stress and the social facilitation effect of alcohol. Average amount of drinking was predicted by the stress and the negative expectancy about alcohol. The predictive variables of the drinking problem were the stress and the social influence. In contrast, social influence was highly predictive of drinking frequency and drinking volume among female. The drinking problem among female was predicted by the stress and the social influence. This findings suggest that stress, alcohol expectancy and social influence were differentially related to drinking measures, and that sexual difference must be considered to account for the relationship.